

【특집】

식민지 조선의 유림과 일본 사문회(斯文會)의 교류*

장 순 순**

- I. 머리말
- II. 조선유림과 사문회의 교류 양태
- III. 유시마성당[湯島聖堂] 재건기념 유도대회(儒道大會)와 조선유림
- IV. 맺음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의 관제 유림단체인 사문회와 식민지 조선유림의 교류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선총독부는 일찍이 식민지 조선의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조선유림의 유시마성당 참배와 사문회 방문을 기획했다. 일본에 간 조선유림들은 사문회를 방문하고 유시마성당을 참배한 후에는 사문회 회원으로부터 사문회 및 일본유학에 관한 강연을 들어야 했다. 3·1운동 후, 조선총독부는 사문회 인사들을 조선에 초청했다. 그들은 문묘 석전에 참석한 후, 경학원이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강연을 했다. 강연은 일제의 식민지 조선 지배와 통치방향에 관한 것으로, 일본 국가주의에 입각한 일본유교를 강조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 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경학원잡지》에 수록되어 전국의 유림들에게 널리 배포되어 읽혔다. 한편, 《사문》에도 조선유림의 글이 실렸는데, 《사문》에 반영된 조선유림의 모습은 피식민의 모습이자 교화의 대상일 뿐이었다.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된 유시마성당이 재건되면서 1935년 사문회에서는 성당재건기념 유도대회와 공자제전을 개최했다. 유도대회는 황도유학의 이론화와 선전을 통해 군국주의를 고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유도대회에는 조선측 인사도 참여했는데, 이들은 경학원의 주요 구성원이자 사문회 회원, 공자의 후손, 1932년에 조직된 유림단체인 조선유교회의 대표자였다. 그리고 상업종사자, 요리종사자, 일본 유학 경험자 등 전통적인 유림의 범주에서 벗어난 인물들의 참가도 있었다. 이들의 등장은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유림의 성격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식민지 조선유림, 사문회(斯文會), 《사문(斯文)》, 경학원, 《경학원잡지》, 유시마성당[湯島聖堂], 황도유학

I. 머리말

재단법인 사문회¹⁾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정권의 성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들의 주도로 1918년 9월 도쿄[東京]에서 조직되었다. 근대 일본의 국가주의적 유학을 생산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유교연구단체로, 이후 몇 번의 조직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²⁾ 일본에서 근현대 교회단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1) 이하 사문회라 한다.

2) 공익재단법인 사문회는 현재에도 일본의 공익법인으로 활동 중이다. 사문회

끼친 단체이며, 그 역사 또한 오래 계속되어 온 유학연구회이다.³⁾

사문회의 모태는 1880년(明治 13)에 창립된 사문학회(斯文學會)였다. 사문학회는 1880년 자유민권운동의 전성기에 유럽을 시찰하고 귀국한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국가의 앞날을 깊이 우려한 나머지 유교를 바탕으로 견실한 사상을 양성하여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라고 주장한 데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사문학회는 서구화주의의 풍조에 대항할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일본의 독자성 즉, 국수(國粹)를 중요시하며 황족존중(皇族尊重)의 의무를 제창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성립한 단체라 할 수 있다. 그 회칙에 따르면, 학회의 목적은 “풍교를 진장(振張)하고 문학을 융성하게 하는 것”이었다. 학교, 강설, 저서 편찬[著撰]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⁴⁾

사문학회는 1887년 새롭게 교사를 신축하는 등 1886년부터 1887년 사이에 새로운 변화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문부성 법령의 변경으로 일본 한학(漢學)에 대한 재검토 열기가 식어가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1895년에는 조직의 개편과 함께 학회의 명칭이 사단법인 사문학회가 되었다. 1889년 2월과 1892년 4월 두 차례에 걸친 화재로 교사가 소실되었고, 1910년 12월에 이르러서는 강의 자체가 중단되는 등 “토지건물을 보존하는 것 외에 죽은 것 같은 상태”

의 홈페이지는 <http://www.seido.or.jp/shibunkai.html> 이다.

- 3) 劉岳兵은 사문회에 대해 “현대 일본의 여러 교회단체 중에서 儒道를 위주로 설립된 것으로, 역사적 유구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회원 중에 다수의 명류가 운집하고 사업의 실시와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친 단체로 斯文會만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劉岳兵, 「日本近代的軍國主義與儒學」, 『日本近代儒學研究』, 商務印書館, 2003; 박영미, 「경학원에 보이는 근대 일본 유학의 경향」, 《일본학연구》 27, 2009, 104쪽 재인용).
- 4) 사문학회와 사문회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陳璋分, 「斯文學會」の形成と展開-明治期の漢學に関する一考察, 《中國哲學論集》 21, 1995, 「近代日本と儒教-「斯文會」と「孔子教」を軸として-, 九州大學 博士學位論文, 1999; 박영미, 앞의 논문(2009), 참조

에 놓이게 되었다.

다이쇼[大正] 초기 사문학회의 부회장이었던 마타노 다쿠[股野琢]는 사문학회의 해산을 결의하고 1918년 9월 추밀원 고문관 고마츠바라 다카시[小松原隆二]를 회장으로, 새롭게 재단법인 사문회를 설립했다. 20만엔 이상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연경회(研經會)·동아학술연구회(東亞學術研究會)·한문학회(漢文學會)·공자제전회(孔子祭典會) 등 한학 관련 단체들을 합병하고⁵⁾, 그해 12월 도쿄대 법학부에서 발회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유시마성당[湯島聖堂] 내에 사무소를 두고, 191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문회의 목적은 “유도(儒道)를 주로 하여 동아의 학술을 천명하여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의 교육칙어의 취지를 익찬하고 우리 국체의 정화를 발휘하는 데”에 있었다.⁶⁾ 이는 사문학회의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사문회와 사문학회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사문회의 조직은 본부, 교화부, 연구부, 제전부, 편집부 등 5개 부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업은 강의·강연 기타 유도의 선전, 학술 연구 및 학비 제공, 학생 양성,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의 제사, 유시마성당의 관리 및 일체 부속건물과 부속물의 보관 유지, 잡지 기타 필요한 도서의 편집 발행 등이었다. 도서 발행에서 대표적인 것은 기관지인 《사문》⁷⁾의 발행이었다. 각부의 부장·부원은 상의원회에서 선발했다⁸⁾, 회원의 중심은 도쿄제국대학의 고

5) 사문회 성립과 研經會·東亞學術研究會·漢文學會 등의 연혁에 대해서는 「斯文會成立以前の諸會の概況」, 《斯文》 1편 2호(1919.4)에 자세히 다룬다.

6) 재단법인 사문회의 목적은 「斯文會會則抄錄」, 《斯文》 1편 1호, 1919.2 참조

7) 사문회에서는 기관지로 《사문》을 발행했다. 《사문》은 1919년 2월에 간행된 이후 거의 매일 간행되었다. 기사, 시평, 논설, 문원, 휘보, 잡록, 신간 소개 등으로 구성된 유학 관련 종합잡지이다. 《사문》은 1편(1919년)부터 7편(1925년)까지는 1년에 6호를 발행했으며, 8편(1926년)은 9호를 발행했다. 9편(1927년)부터 27편(1945년)까지는 12호를 발행, 매일 간행되었다(장순순의 편, 『일본 유교잡지 『斯文』 기사 상세목록』, 2022, 선인).

8) 첫 선거에서 교화부장에 服部宇之吉, 부원에 鹽谷溫 諸橋轍次 松本洪, 연구

전강습과·철학과·한학과(후에 지나철학과)·지나문학과·동양사학과 출신자들이었다. 회원 수는 처음에는 명예회원·특별회원·찬조회원을 포함하여 780인이었으나 서서히 증가하여 1937년에는 1,300인에 달했다.⁹⁾

사문회에 관한 연구는 2010년을 전후하여 첸웨이핀[陳瑋分], 박영미, 강해수, 정옥재, 정세현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 또한 크다¹⁰⁾. 이들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유교기관인 경학원과의 연관성, 사문회 회원의 언설 등에 대한 담론적 접근, 공자제[석전]의 공간으로서 유시마성당, 사문회에서 주도한 특정한 행사 등을 주목했다. 그 결과 사문회는 근대 한국과 일본유교, 나아가 동아시아 유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유교단체로서 사문회가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다양한 주제의 탐색과 연구가 요구된다. 사문회와 조선유림 간의 관계 및 활동에 탐색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유림을 중심축에 두고 그들과 사문

부장에 市村瓚次郎, 부원에 宇野哲人·前原三郎·飯島忠夫, 祭典部長에 嘉納治五郎, 위원에 三宅米吉·細田謙藏·神谷初之助, 편집부장에 林泰輔, 부원에 中村久四郎·山口察常·高成田忠風·竹田復, 그리고 서기에 山本邦彦 등이 각각 선발되었다. 이들은 이후 사문회의 핵심 멤버로서 군국주의에 복무했던 자신들의 침략논리를 조선유림에게 주입하는 역할을 수행한 중심인물이었다.

9) 陳瑋分, 앞의 논문(1999), 108쪽

10) 사문회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陳瑋分, 앞의 논문(1999); 박영미, 앞의 논문(2009), 「공성학(孔聖學)의 탕도기행(湯島紀行)에 대하여」, 《한문학보》 32, 2015; 정세현, 「공자제를 통한 경학원과 사문회의 교류 - 공자이천사백년 추원기념제(孔子二千四百年追遠記念祭)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35, 우리한문학회, 2016; 정옥재, 「1920년대 식민지 조선유림과 일본의 탕도성당(湯島聖堂)」, 《民族文化研究》 71, 2016 등이 있다. 최근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는 『일본 유교잡지 『斯文』 기사 상세목록(1919~1946)』(선인, 2022), 『일본 유교잡지 『斯文』 주요 기사 1』(선인, 20.22)을 자료총서로 발간했다.

회의 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유림과 사문회 구성원의 교류 양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1935년 ‘유시마성당 부흥기념’ 행사 중 하나였던 유도대회에 주목하여 참여한 조선유림의 행보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 유교단체 사문회와 조선유림의 관계, 나아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개된 근대 한국유학의 단면을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조선유림과 사문회의 교류 양태

1. ‘내지시찰’을 통한 교류

1881년 조사시찰단을 연원으로 실시된 ‘일본시찰’은 1910년 강제 병합 이후에는 ‘내지시찰’로 명칭이 바뀌었다. 총독부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파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되었다.¹¹⁾ 일제는 ‘내지시찰’을 통해 조선 명망가들에게 일본의 근대성을 과시하고 조선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합리성을 체현시키며,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전근대적인 모습을 스스로 각성케 함으로써 일제 식민지배의 조력자를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내지시찰’은 식민지 조선인에게 내지, 즉 일본의 개화된 발전상을 직접 보여주고 후진적 조선과 비교시킴으로써 조선인에게 ‘일제의 강대성’과 ‘조선독립의 불능’을 인식시키려는 정치선전적

11) 1910년대에는 귀족관광단(1910), 전북관광단(1911), 東拓視察團(1911~1915), 기독교시찰단(1911), 유림시찰단(1912, 1914), 朝鮮縉紳內地視察團(1914), 교육시찰단(1914), 불교시찰단(1917), 九州視察團(1918), 蠶業視察團(1919), 農事視察團(1919) 등의 시찰단이 수시로 파견되었다(조성운, 『『매일신보』를 통해서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 《한일민족문제연구》, 2004, 7~8쪽).

측면의 동화정책이었다.¹²⁾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유학자 간 상호 교류는 1918년 9월 사문회가 조직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사문학회’, ‘공자제전회’ 등에서 활동한 미시마 주슈[三島中洲], 모리 가이난[森槐南] 등은 1907년 다이쇼천황[大正天皇]이 황태자로서 조선에 왔을 때 수행한 바 있으며, 조선유림의 시집 및 《대동학회월보》 등에는 그들 간의 교류를 증명해 주는 수창시 등이 종종 보인다.¹³⁾ 조선유림의 ‘내지시찰단’ 파견은 1912년과 1914년 두 차례 있었다.¹⁴⁾ 1914년 유림시찰단은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여정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 각도에 임명한 경학원 강사 13명과 경학원 사성(司成) 이인직(李仁植), 직원 박치상(朴稚相)·정철영(鄭喆永) 등 17명이 참가했다. 그들은 도쿄에서 개최되는 다이쇼박람회[大正博覽會]를 참관하고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와 유시마성당을 참배하고 귀국했다.¹⁵⁾ 당시 유시마성당의 참배로 경학원 인사들은 사문학회 인사들을 만났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일본 유학계의 인사와 유시마성당의 존재가 조선유림에게 명확히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이후 조선인의 ‘내지시찰’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직원, 청년층, 종교계 인물, 학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졌다. 종교계의 경우 불교계와 유림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¹⁶⁾ 유림계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내지시찰 횟수 또한 대단히 증가했다.¹⁷⁾ 조선유림의 유시마성당 참배도 이전과 달리 사문

12) 강동진,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1980, 49쪽

13) 박영미, 『일제강점초기 漢學知識人の 문명관과 대일인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참조

14) 조성운, 앞의 논문(2004), 8쪽

15) 《每日申報》, 「社說: 講士視察團」, 1914.5.19 ; 「講師視察見聞所記」, 《경학원잡지》 3, 1914.6, 37~48쪽

16) ‘내지시찰’에 관한 연구 성과는 성주현, 「1920년대 유림계의 ‘내지시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2015, 104~105쪽 주3)~주5) 참조.

17) 성주현은 당시 신문에 게재된 것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20년대 유림

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¹⁸⁾ 이들의 도입은 “내지인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한 사상의 계발과 내선융화 상의 공헌을 목적으로” 총독부가 기획한 것이었다. 유림들은 방문 때마다 사문회에 관한 안내와 유학에 관한 강연을 청취했다. 총독부는 조선의 명망가인 유림들에게 당시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과 더불어 경학원과 유사한 성격의 일본 유교단체인 사문회의 모습과 조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¹⁹⁾ 이후 유림들의 사문회 방문과 유시마성당 참배는 일본을 방문할 때면 들러야 하는 코스가 되었다.²⁰⁾

몇 가지 사례를 들면, 1921년 5월 19일 황해도 ‘내지시찰단’의 유시마성당 참배 때에는 사문회 교화부장 핫토리 우노기치[服部宇之吉]의 환영 인사가 있었다. 얼마 뒤인 10월 5일에는 충북 유림 23명의 유시마성당 참배가 있었다.²¹⁾ 시찰단 파견에 앞서 충북지사는 시찰단의 파견은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림들에게 일본인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접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상을 계발하여 내선융화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사문회에 통보하고, 유시마성당 참배 후 유림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요청했다. 사문회

계의 내지시찰은 1920년 10월 31일부터 1월 10일까지 경북도청과 유도진흥회 경북지회가 주최한 ‘내지시찰단’을 시작으로 22회가 확인된다고 하였다 (성주현, 앞의 논문(2015) 참조). 그러나 《경학원잡지》와 《斯文》 등을 참조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18) 1920년 11월 ‘조선유림관광단’이 유시마성당을 참배했을 때 사문회에서 주관하기 시작했다(財團法人 斯文會沿革略, 《사문》 7편 2호, 1925.4).

19) 정세현, 앞의 논문(2016), 109~110쪽

20) “조선의 유림은 수년 이래 자주 내지관광을 했다. 작년(1920년-인용자)부터는 湯島聖堂의 석전에 참석하기 위해 東京에 왔기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내지에서 서둘러 답례로 京城에 가야 했는데 아직 여가가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년에 생각지도 않게 총독부의 초청으로 仲秋 초하루에 거행되는 석전에 참석하기 위해 工藤翁과 함께 사문회에서 파견되었다”(宇野哲人, 「京城行」, 《사문》 3편 6호, 1921.12, 473쪽).

21) 《사문》 제3호 제5편, 1921.10, 81쪽

에서는 회간부장(會幹部長), 상의원 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교화부장 핫토리 우노키치가 환영인사와 함께 사문회의 목적사업과 여러 유림에 대한 희망 등을 이야기하고, 연구부장 문학박사 우노 데츠토[宇野哲人]는 「유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유도정신에 대해 강연했다. 또 11월 2일에는 전라남도유림단원 25명, 제2회 경상북도유림단원 24명의 유시마성당 참배가 있었다. 참배 후 사문회 특별회원 문학박사 미야케 요네키치[三宅米吉]가 유림단원들에게 유시마성당과 사문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으며, 핫토리 우노키치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림의 방침과 동양평화를 위한 내선융합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1922년에는 더 많은 조선인이 사문회와 유시마성당을 방문했다. 1922년에는 도쿄에서 개최된 도쿄평화박람회 참관을 위해 유림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내지’를 시찰하였는데, 4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방문한 단체만도 총 49개 단체, 1,202명에 달할 정도였다.²²⁾ 그래서 처음 2~3회는 제전부장 나카야마 규시로[中村久四郎]가 참배자를 안내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서기가 응접했으며, 사문회와 유시마성당에 관한 설명은 인쇄된 「성당연혁략(聖堂沿革略)」과 「사문회취의서」로 대신했다.²³⁾ 5월 20일에 있었던 경북·충북·전남 유림내지시찰단도 성당 참배 후 사문회 총무 핫토리 우노키치의 사문회의 취지, 유시마성당의 내력 및 공부자 2400년 추원기념제에 대한 설명과 사문회 회원이자 총독부 학무국 시학관·경성전수학교 교수인 문학박사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유도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때 다카하시 도루는 ‘조선어’로 강의를 해 참석자의 호평을 받았다.²⁴⁾

22) 《사문》 4편 3호, 1922.6, 92쪽, 4편 4호, 1922.8, 69쪽

23) 《사문》 4편 3호, 1922.6, 92쪽

24) 《사문》 4편 4호, 1922.8, 69쪽. 전라남도 유림단(단장, 金商翊)에서는 孔子2400年追遠記念祭를 위해 20원의香火料를 기부했다.

그러나 1940년대가 되면 1920년대에는 ‘내지시찰’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던 조선유림의 일본 방문이 ‘성지순배’, ‘조선유림성지참배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1년 10월 조선유도연합회²⁵⁾의 회원이자 경학원 간부가 다수를 차지한 ‘성지순배’가 있었다. 이들은 총 13명으로 총독부로부터 조선 각도를 대표하는 유림들로 인정받아 조선유림성지참배단에 선발된 인물이었다.²⁶⁾ ‘성지참배단 파견 요항’에 따르면, 당시 유림의 파견은 국제관념의 양양과 경신사상(敬信思想)의 철저한 함양을 통한 황도유학의 확립·구현에 목적이 있었다.²⁷⁾ 성당 참배 후 유림들은 「일본정신으로 본 유교」라는 제목의 우노 데츠토의 강연을 청취했다. 강연에서 우노 데츠토는 유교를 준봉(遵奉)함은 동양의 여러 민족이 향해야 할 정신 기준을 수립하여 그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국책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정신의 근원적 연원이 유교와 관련이 있으며 유교는 일본정신을 통해 그 정수가 드러난다고 함으로써,²⁸⁾ 조선인 스스로 황국신민임을 인식케 하여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도록 개조하려 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전쟁은 ‘성전의 수행’이 되었고, 조선유림을 대상으로 한 사문회의 강연 내용도 ‘내선융화’에서 침략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변해 갔다.

25) 조선유도연합회에 대해서는 정육재,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 황도유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9 참조

26) 단원 가운데 김병욱, 조병렬, 윤정현, 최윤, 정순현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수록되었, 이들을 포함하여 박제봉, 남상익, 서재극, 유훈영, 최경식, 최달빈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2009)에 수록되어 있다.

27) 朝鮮儒道聯合會, 『朝鮮儒林聖地巡拜記』, 「聖地參拜團派遣要項」, 1943

28) 朝鮮儒道聯合會, 『朝鮮儒林聖地巡拜記』, 「宇野博士講旨要演」, 1943, 77~

2. 《경학원잡지》와 사문회 회원의 활동

1919년 3·1운동을 경험한 일제는 3·1운동의 발발이 ‘일선인(日鮮人) 간의 융화가 부족’한 데서 기인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국에 대해서는 “표면상으로는 진정된 것 같지만, 조선인의 내지인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험악해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언제 어떠한 사태를 야기가 야기 될지 알 수 없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상황”²⁹⁾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총독부는 조선의 명망가에 대한 회유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친일 인물의 확보야말로 일본의 조선통치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고 보고, 귀족·양반·부호·실업가·교육가·종교가 등에 친일인물을 침투시켜 각종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는 등 친일세력을 양성하는 데 보다 많은 투자를 했다³⁰⁾.

그 결과 중앙과 지방에서 많은 유교 단체가 조직되었다. 3·1운동으로 ‘퇴락한 지방의 민풍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는 교풍회(矯風會)·명륜회(明倫會)·모성회(慕聖會)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1920~30년대 조직된 유교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동사문회·조선교풍회·유도진흥회·조선유교회·조선유도연합회·강원유도천명회(江原道儒道闡明會)·전라남도창명회(全羅南道儒道彰明會)·인도공의소(人道公議所)·유교부식회(儒教扶植會)·평양대동유림회(平壤大同儒林會) 등이 있다. 이들 단체 대부분은 일제의 통치에 협력적인 성격을 띠었고, 총독부의 후원으로 조직된 것인 만큼³¹⁾, 총독부가 주도한

29) 《斯文》 2편 4호, 1920.8.1, 61쪽

30) 강동진, 앞의 책(1980), 167~168쪽

31)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은 매우 복잡다기한 성격을 지녔다. 전국 각지의 유림들은 나름의 지역적 토대 위에서 일제의 유교정책과 유림정책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보였으며, 그 성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유림 개개인은 적극적인 항일운동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친일협력단체에 지도급 인사로 직

‘내지시찰’에도 활발하게 참가했다.

한편, 총독부는 문묘 석전 등 경학원에서 거행하는 행사에 사문회 인사들을 초청했다. 마침 이 시기는 1918년 9월 조직된 사문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때였으므로, 1920년대 들어오면서 사문회 인사들은 경학원³²⁾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조선에 건너온 사문회 인사들은 경학원에서 거행한 문묘 석전에서 고유문을 낭독하고 침향례에도 참석했다. 석전이 끝난 후에는 경학원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대동사문회 등 유교단체 소속 유림과 총독부 관리, 관공립 학교 교직원,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조선총독부는 경학원의 행사에 사문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참석시킴으로써 유림을 비롯한 조선인들을 회유하고 통제하는 한편, 각종 강연 등을 통해 유도를 가장한 사상적 공세를 펼쳤던 것이다.

다음은 《경학원잡지》³³⁾에서 석전에 참석했거나 강연회에서 강사

극적인 참여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 반일저항과 친일협력을 둘러싸고 유림 사회의 양립 현상도 나타났다(변은진,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현황과 성격」(《역사와 담론》 93, 2020, 183~184쪽).

- 32) 경학원에 관한 연구로는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 1910~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정규영, 「조선총독부의 조선유교지배」, 《학생생활연구》 4, 1996; 柳美那, 『植民地朝鮮における經學院の研究』, 早稻田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식민지권력에의 ‘협력’과 좌절-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26, 2005,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2007; 정옥재, 「1910~1920년대 經學院의 人的構成과 役割」, 《정신문화연구》 30-1, 2007, 「日帝協力儒林의 儒敎認識: 1910~1920년대 경학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6, 2007, 「일제강점기 經學院 講師의 위상과 활동」, 《歷史學研究》 86, 2002; 박영미, 앞의 논문(2009) 등이 있다.

- 33) 경학원에서는 기관지로 《경학원잡지》를 간행했다. 1913년 1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1944년 4월까지 총 48개호가 발간되었다. 그 구성은 창간호 때부터 序, 祝辭, 論說, 學術, 文苑, 詞藻, 彙說, 本院紀事 등의 고정란을 두고 그 내부에 여러 기사를 수록했다. 이후 祀典, 紀蹟, 論文, 法令 등이 새롭게 고정란으로 추가되기도 했다. 본원기사 안에는 매호마다 地方報告, 강연 원고를 수

로 참여, 혹은 동 잡지에 글을 기고한 사문회 회원들을 추출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경학원잡지》에 보이는 경학원과 사문회의 교류

일시	교류 내용	참가자 이름	비고
1921.09.11	경학원 석전참석, 添香式, 告文進讀, 총독주최 만찬참석	宮中顧問官 사문회, 이사 工藤一記	經學院釋奠參拜時告文
	추계석전참배, 고문진독, 강연회	도쿄제국대학 교수, 사문회 연구부장 宇野哲人	강제: 一貫之道
1922.08.28	今井彦三郎가 경성에 온 것을 기화로 강연회를 개최	東京第一高等學校 教授, 사문회 회원 今井彦三郎	강제: 周公孔子之道
1923.09.20	경학원 석전참배, 고문진독, 강연회, 만찬	도쿄제국대학 교수, 경성제국대학 초대총장 (1926년), 사문회 총무 服部宇之吉	經學院釋奠參拜時告文 강제: 知天命說
1923.12 ~ 1926.12	기고, 《경학원잡지》 24~27	사문회 회원 佐藤廣治 / 京都第3高等學校	제목: 釋奠에 就하야
1924.03.10	경학원 석전참석, 고문진독, 강연회, 만찬	도쿄제국대학 교수, 사문회 연구부장 市村瓚次郎	告文 강제: 文化와 儒敎
1925.03.04	경학원 석전참석, 고문진독, 만찬 경학원 강연회	도쿄제국대학 교수, 사문회 부회장 井上哲次郎	강제: 공자의 天의 觀念에 就하야
1925.12	기고, 《경학원잡지》 26~27	도쿄제국대학 교수, 大東文化學院 총장, 사문회 총무 服部宇之吉	기고: 仁義와 現代思潮

록한 講說, 경학원의 활동을 정리한 日誌大要 등을 두었다.

1926.9.15	경학원 석전 후 강연회	경성제국대학 교수, 문학박사, 사문회원 藤塚鄰	강제: 君子之道
1927.3.4	경학원 석전참배, 고문진독, 강연회	경성제국대학 교수, 문학박사, 사문회원 兒島獻吉郎	강제: 孔夫자의 集大成
1929.12	기고, 《경학원잡지》 30	도쿄제국대학 교수, 문학박사, 사문회 편집부장 鹽谷溫	제목: 中學漢文論 (金完鎭 번역)
1931.03.23	경학원 석전참석, 강연회	경성제국대학 교수, 문학박사, 사문회 교화부장 宇野哲人	강제: 孔夫子之盛德 명륜학원 주최
	경학원 석전참석, 강연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장 교수, 명륜학원 강사(1932.4.4.) 藤塚隣	강제: 孔門의 教育과 就職問題
1932.10.14	강연	사문회 총무 문학박사 服部宇之吉을 초청·강연함	
1936.08.	詩文 기고	도쿄제국대학 교수, 문학박사, 사문회 편집부장 鹽谷溫	제목: 奉輓鄭茂亭先生·井上哲次郎

사문회 인사로 경학원 석전에 참석하거나 식후 강연회에서 강연하거나 경학원 잡지에 글을 기고한 인물은 총 10명으로 파악된다. 구도 가즈키[工藤一記]·우노 데츠토·이마이 히코사부로[今井彦三郎]·하토리 우노키치·사토 히로지[佐藤廣治]·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瓊次郎]·고지마 겐키치로[兒島獻吉郎]·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후지츠카 지카시[藤塚隣]·시오노야 온[鹽谷溫]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고전강습과 또는 한학과 출신들로³⁴⁾ 사문회의 핵심 중요 간부, 즉 특별회원들이었다. 또 1918년 사문회 출범 당시 중심인물

이었으며, 당시 일본 한학계를 대표하는 대가들이었다.³⁵⁾

구도 가즈키는 사문회 특별회원으로 가쿠슈인[學習院]·화족여학교(華族女學校) 교수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궁중고문관에 재직하면서 사문회 이사 자격으로 1921년 경학원의 춘계석전에 참여했다. 함께 참여한 우노 데츠토는 사문회 연구부장으로 석전에 참석했다.³⁶⁾ 그는 사문회의 초대 교육부장을 지냈으며, 1897년 도쿄제국대학 한학과에 들어가 시마다 고손[島田篁村]·네모토 미치아키[根本通明]·이노우에 데츠지로에게서 배웠으며, 1907년 도쿄제대 조교수가 되었다. 1919년 독일 문헌대학에서 문학박사를 취득,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지나철학강좌 교수가 되어 1936년에 퇴임했다. 이후 도쿄제국대학 명예교수, 동방학회 초대 이사장·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우노 데츠토는 석전 식후 행사로 명륜당에서 경학원과 대동사문회가 공동 주최한 강연회에서 「일관지도(一貫之道)」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강의 내용은 공자의 생애를 통하여 가장 뛰어난 것은 정치적 사업, 교육적 사업 및 산술(刪述)의 3대 사업에 귀결된다는 것을 설파하고, 『논어』의 장구를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었다.³⁷⁾ 그는 이후 1931년 3월 21일 춘계석전에도 참여하였으며, 명륜학원에서 주최한 강연회에

34) 陳瑋分, 앞의 논문(1999년), 115~118쪽

35) 사문회의 회원에는 명예회원(常議員會의 협찬을 거쳐 회장에게 추천하는 자)·특별회원(회에 공로가 있어서 상의원회의 인정을 거친 자)·찬조회원(매년 1월 50전을 납부하는 자)의 구별이 있었다. 「특별회원」의 명단은 「재단법인 사문회 기부행위」 참조.

36) 일행은 3월 9일 경성의 남대문에 도착하여, 10일에는 조선유림과 함께 水野 정무총감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그리고 9일에는 석전에 참석하여 添香禮를 행했다. 석전에서 구도 가즈키는 축문을 봉독했다. 저녁에는 대동사문회 주최로 明月館에서 열린 환영연에 참석했다. 환영연에는 조선총독부 관리, 경학원, 유도진흥회, 대동사문회, 사문회 인사들의 참여가 있었다(宇野哲人, 「京城行」, 《사문》 3면 6호, 1921.12).

37) 《경학원잡지》 22, 1922.3; 《동아일보》, 「香煙과雅樂이滿堂한 秋季釋奠大祭」1921.9.12

서 「공부자지성덕(孔夫子之聖德)」을 강연했다.

도쿄제일고등학교 교수이자 사문회 회원 이마이 히코사부로는 1922년 8월 22일 경학원에서 「주공공자지도(周公孔子之道)」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그의 경성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였다.³⁸⁾

사문회의 초대 교화부장이며 일본 공자교 주창자였던 핫토리 우노키치는 도쿄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1899년 동교(同校)의 조교수에 임용된 이후 중국 및 독일에서 4년간 유학했다. 1901년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교수직에 올라 1928년 퇴직할 때까지 재직했다. 경성제국대학 설립에도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초대 총장(1926~1927년)을 겸임하는 등 조선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1923년 추계석전 참석을 위해 사문회에서 특파되었다.³⁹⁾ 당시 사문회 총무였던 핫토리 우노키치는 9월 20일 오전 석전에 참석하여 고유문을 낭독하고⁴⁰⁾ 오후에 명륜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지천명설(知天命說)」을 제목으로 『논어』 장구를 들어 유도에 관한 강연을 했다.⁴¹⁾ 그리고 1925년에는 《경학원잡지》 26호와 27호에 연이어 「인의(仁義)와 현대사조」라는 글을 기고했으며⁴²⁾, 1932년 10월에도 경성에 온 것을 기회로 경학원의 요청이 있어서 유림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⁴³⁾

1924년 3월 춘계 석전에 초대된 이치무라 산지로는 사문회 초대 연구부장이었다. 그는 1878년 메이지법률학교[明治法律學校]를 거쳐, 1887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했다. 1890년 가쿠슈인 조교수가 되었으며, 1892년에 교수가 되었다. 1898년부터 도쿄제국대학 문학대학 조교

38) 《경학원잡지》 23, 1922.12, 61쪽, 69~74쪽

39) 《경학원잡지》 24, 53~56쪽

40) 《경학원잡지》 24, 1923.12, 12~13쪽

41) 《경학원잡지》 24, 1923.12, 60~89쪽

42) 《경학원잡지》 26, 1925.12, 1~9쪽, 《경학원잡지》 27, 1926.12, 1~6쪽

43) 《경학원잡지》 36, 1933.12, 22쪽

수, 1905년에는 교수가 되어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와 함께 도쿄제국대학에서 동양사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1924년 도쿄제국대학을 퇴직하고, 이듬해에 명예교수가 되었다. 1924년 춘계석전에 사문회 연구부장으로 참석하여 고유문(44)을 낭독했으며 강연회에서 「문화와 유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이노우에 테츠지로는 자칭 ‘천황제 정부의 가장 충실한 어용학자’(45)였다. 그는 도쿄제국대학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전공했다. 1880년 졸업 후 문부성 관리를 지냈으며, 1882년에 도쿄대학 조교수가 되었고, 1884년부터 1890년까지 독일에 유학했다. 1911년에 박사학위를 취득, 도쿄제국대학 철학과 교수가 되어 1923년에 퇴직했다. 이후 도쿄대학[東洋大學] 교수, 총장을 지냈다. 1898년 교육칙어의 주석이라는 형식을 통해 『칙어연의(勅語衍義)』를 기술한 인물이다. 그는 교육칙어의 완벽한 주석가로, 근대 일본유학의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다. 교육칙어에 대한 해석과 근대유학, 국가주의화로 이어진 그의 사상은 일본제국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기도 한다.(46) 그는 사문회 부회장으로 1925년 3월 4일 춘계석전에 참석하여 고유문을 낭독했다. 오후에 있었던 강연회에서는 「공자의 천(天)의 관념에 취(就)하야」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당시 석전에는 조선총독 대리 오츠카[大塚] 내무국장을 비롯하여 각 관리 신사 유림 및 관공사립 각 학교 교직원 생도 등 1,223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했다.(47)

한편, 경성제국대학 교수이자 사문회원이었던 고지마 겐키치로는 1888년 도쿄제국대학 고전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실박물관(皇室博物

44) 《경학원잡지》 25, 1924.12, 13쪽

45)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엮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사팀 옮김, 『근대일본사상사』, 소명출판, 2006, 76쪽

46) 박영미, 앞의 논문(2009), 33쪽

47) 《경학원잡지》 26, 1925.12, 44쪽

館) 기수(技手), 제오고등학교(第五高等学校),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수를 거쳐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 한문과 주임교수로 부임했다. 그는 1927년 3월 4일 경학원 춘계석전 참석 후 명륜당에서 「공부자의 집대성」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그리고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총독부 당국자와 경학원 관계 유림단을 모이게 하여 “공자교로 내선인의 융화에 노력, 공헌할 것을 도모”하기도 했다.⁴⁸⁾

후지즈카 지카시는 1908년 도쿄제국대학 지나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제팔고등학교 교수를 거쳐 1923년에는 중국 유학을 했다. 1928년에는 경성제국대학의 신설과 함께 교수가 되었으며, 1931년에 법문학부장이 되었으며 1940년 퇴직했다. 경성제국대학 재직 시절 이후 다이토문화학원[大東文化學院] 교수와 총장을 지낸 인물이다.⁴⁹⁾ 1926년 9월 15일 경학원 추계석전 후 명륜당에서 거행된 제41회 경학원 강연회에서 「군자지도(君子之道)」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⁵⁰⁾ 1931년 3월 23일에 거행된 문묘 춘계석전 후 거행된 제50회 강연회에서 「공문(孔門)의 교육과 취직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그는 이듬해인 1932년 4월 4일 일본인으로서 명륜학원 강사에도 임명되었다.⁵¹⁾

시오노야 온은 한학자 집안의 출신으로 시오노야 세이잔[塩谷青山]의 아들이다. 그의 백부는 에도시대 말기의 유학자 시오노야 도인[塩谷宕陰]이다. 1902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1905년 가쿠슈인의 교수가 되었으며, 1906년 도쿄제국대학 조교수가 되었다. 1920년에 문학박사를 취득, 교수가 되었으며, 1939년 퇴직 후 동 대학의 명예교수가 되었다. 경학원 주최 강연회에서 강연은 없었으나 《경학원잡지》에는

48) 《경학원잡지》 28, 1927.12, 66~71쪽; 《사문》 9편 4호, 1927.4, 56쪽

49) 李曉辰, 「京城帝國大學の支那哲學講座と藤塚鄰」, 《東アジア文化研究會院生論集》 1, 2013 참조

50) 《사문》 8편 8호, 1926.11, 57쪽

51) 《경학원잡지》 35, 1932.12, 26쪽

「중학한문론(中學漢文論)」⁵²⁾과 경학원 대제학 정만조의 사망을 애도하며 쓴 만사 등 그가 쓴 2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⁵³⁾

한편 1922년 8월 이마이 히코사부로와 1932년 10월 핫토리 우노키치의 강연은 두 사람이 경성 방문을 기회로 경학원이 요청하여 마련된 자리였다는 점에서 조선총독부와 경학원이 사문회 인사들의 강연 기회를 통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이다.

사문회 인사들의 강연 내용은 주로 조선 민중에 대한 식민지배와 일본 제국의 통치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사문회 총무 핫토리 우노키치가 1925년에 강연을 하고 《경학원잡지》 26호 및 27호에 게재한 「인의와 현대사조」와 1931년 3월 23일 경학원 명륜당에서 실시된 제50회 경학원 강연회에서 후지츠카 지카시가 강연한 「공문의 교육과 취직문제」는 제목만으로도 그 성격이 잘 드러난다. 즉, 조선총독부는 유교적 사회질서가 여전히 유효한 식민지 조선에서 중앙과 지방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림을 대상으로 일본 근대의 국가주의적 유학을 생산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문회의 핵심 전문가들⁵⁴⁾을

52) 《경학원잡지》 30, 1929.12, 4~15쪽

53) 《경학원잡지》 40, 1936.8, 58쪽

54) 이들은 사문회의 중핵으로서 각종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경학원에서 주최하는 강연 등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설파했을 뿐 아니라 기관지인 《사문》에서도 다수의 글을 발표함으로써 자신들의 논리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점은 1935년 유시마성당 재건기념 유도대회에서도 잘 드러난다. 핫토리 우노키치는 당시 사문회 부회장겸 총무로서 ‘국제적 유도대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았다. 유도대회 후 부대행사로 치뤄진 ‘유교문화 강연회’에서 이노우에 데츠지로는 「孔子の人格と信念」을, 시오노야 온은 「我が國體と漢學」이라는 강연을 했고, 라디오를 통해 송출된 ‘유도대회기념방송’에서 핫토리 우노키치는 「人の道」, 우노 데츠토는 「論語の讀み方」, 시오노야 온은 「孔夫子の盛徳大業」을 강연했다. 그리고 ‘제29회 공자제기념 춘계대강연’에서는 핫토리 우노키치가 「誠」, 사오노야 온이 「孔夫子の道と世界の平和」라는 강연을 함으로써 일본적 유교, 즉 국가주의 유교

초청하여 일제의 침략논리를 주입함으로써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도모하려 한 것이다. 그 결과 1935년경이 되면 사문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저서가 조선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고 공유되기에 이른다.⁵⁵⁾

3. 《사문》에 보이는 조선유림의 활동

조선인 사문회 회원은 어윤적(魚允迪), 김완진(金完鎭), 김우식(金禹植), 안인식(安寅植), 공성학(孔聖學), 김창한(金彰漢), 임홍재(任弘宰), 정태호(鄭兌浩), 김정회(金正會), 이대영(李大榮), 권순구(權純九), 이병관(李炳觀), 정봉시(鄭鳳時), 유진찬(俞鎭贊), 송지현(宋之憲) 등이며, 단체로는 대동사문회, 강원도유도천명회, 유도진흥회가 가입했다.⁵⁶⁾ 전체 사문회 회원 가운데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중

의 양산에 충실히 복무하였다(斯文會,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會誌』, 1936. 10, 113~290쪽).

- 55) 당시 신문에서는 유교에 관한 상세한 연구문헌과 저자 및 정가 등을 알려달라는 독자의 질문에 기자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宇野哲人の 『儒學史』와 小柳司氣太의 『經學史』 같은 것이겠지요. 정가와 출판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京城 本町 등지에 있는 큰 冊肆에 물어보시오.”라는 답변을 하였다(《동아일보》, 「東亞 살롱」, 1935.4.26).
- 56) 조선유림의 사문회 가입여부는 《斯文》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斯文會會員名簿』와 《사문》의 ‘회원사조란’에 글을 실은 조선인 인명을 찾아 확인한 것이다. ‘회원사조란’에 글을 실은 인물은 權純九, 「朱文公生誕八百年 次韻」(《사문》 13-11), 金正會, 「次櫻井楠公祭韻」(《사문》 13-7), 金彰漢, 「三勇士 次韻」(《사문》 14-4), 「靜岳源公頌德詞 次韻」(《사문》 15-8), 安寅植, 「己巳元旦」(《사문》 11-1), 「池田蘆洲君教授二松學舍四十年 次韻」(《사문》 12-1), 「朱文公生誕八百年 次韻」(《사문》 13-11), 「新年述懷」(《사문》 13-2), 「癸酉新年」(《사문》 15-2), 魚允迪, 「祝山本晴谷翁古稀壽 次韻」(《사문》 11-10), 「祝三宅博士古稀壽 次韻」(《사문》 11-12), 「池田蘆洲君教授二松學舍四十年 次韻」(《사문》 12-1), 李大榮, 「朱文公生誕八百年 次韻」(《사문》 13-11), 李炳觀, 「朱文公生誕八百年 和韻」(《사문》 13-11), 任弘宰, 「謹次歡迎靜岳德川公歸自歐米諸國韻」(《사문》 13-2), 鄭

국, 대만의 그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⁵⁷⁾

다음 <표 2>는 《사문》에 나타난 조선인의 활동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사문》에서 보이는 조선유림의 활동

일시	교류 내용	참가자 이름	비고
1919.06	文苑	金允植	「采馥兒」
1919.08	文苑	鄭丙朝	「羸石樓 次申青泉韻」
1920.02	文苑	趙重應	「金剛山」
1920.12	文苑	金允植	「平澤文廟重修記」
1922.02	휘보(김윤식 사망 소식)	金允植	「金允植氏の逝去」
1922.10	湯道聖堂孔夫子忌辰 2400年追遠記念祭	朴箕陽, 鄭萬朝, 鄭鳳時, 金完鎭, 朴時陽	「湯島聖堂祭典參拜志感」
		朴箕陽, 張相輓, 申泰完	「祝文」
		申泰完	「湯島聖堂追遠祭恭賦」
		裴明善	「孔夫子追遠記念祭席上恭賦」 차운
1923.02	기고	金完鎭	제목:朝鮮に於ける儒教と經學院の任務
1924.12	湯道聖堂 참배, 文苑	鄭萬朝, 鄭丙朝, 徐相助, 魚允迪, 宋之憲	「南山雅集席上 次天隨詞宗 (久保得二)韻」
1927.10	劍西 岡田正之 博士 追悼記	金完鎭	「哭岡田博士」 차운

兌浩, 「次櫻井楠公祭韻」(《사문》 13-7) 등이다.

57) 박영미, 앞의 논문(2009), 101쪽

1928.11	昭和天皇 즉위 기념	魚允迪, 金完鎭	「奉頌即位大典」 차운
1930.06	사문회장 德川家達 유 립방문 환송	金完鎭, 金彰漢, 魚允迪	「奉送靜岳德川公赴歐洲」 차 운
1931.03	賴山陽先生百年祭	金彰漢, 魚允迪, 金正會, 鄭兌浩	「山陽先生百年祭有感」 차운
1931.08	東都聖堂創建三百年 追懷往時	魚允迪, 金彰漢	「東都聖堂創建三百年追懷往 時賦此」 차운
1931.10	靑淵 澁澤榮一 자작 지 진재난 모금	魚允迪, 金彰漢	「九月六夜聽靑淵子爵賑災勸 募電聲感而有作」 차운
1931.11	朱文公八百年祭	金彰漢, 兪鎭贊	「朱文公生誕八百年追慕恭賦 」 차운
1931.12	靑淵 澁澤榮一 자작 추 도	金彰漢	「悼靑淵澁澤先生」 和韻
1934.02	明仁 황태자 탄생 축하	金彰漢	「皇儲降誕賀詞」 차운
1934.05	만주국 蘇戡 鄭孝胥 湯 道聖堂 방문	鄭鳳時, 兪鎭贊, 金完鎭	「湯島聖堂迎蘇戡鄭先生」
1935.05	湯道聖堂復興記念 儒 道大會 참석, 공자제전 고문진독	鄭萬朝	「謹次聖廟復興韻」
		孔錫祐, 金完鎭	「謁聖廟」
		鄭萬朝	孔子祭典 「告文」
		孔聖學	「祝辭」/ 「芝山雅集次聽松男 爵韻」 「送孔春圃赴湯島聖堂儒道大 會兼呈鄭茂亭先生」
		李箕紹	「送孔春圃赴湯島聖堂儒道大 會兼呈鄭茂亭先生」
		鄭萬朝, 兪鎭贊, 孔聖學, 黃錫龍, 孔在哲	「芝山雅集次聽松男爵韻」
		鄭萬朝	「(儒道大會)演說要旨」
		鄭萬朝, 兪鎭贊	「芝山雅集次聽松男爵韻」

1936.02	정만조 애도 告文	경학원 직원, 鄭鳳時 등	
	정만조 사망 애도 특집	鄭萬朝	「朝鮮文學球弊論」
1936.04		佐佐木純	「朝鮮詩調海棠花曲と孔聖學氏漢詩」
1936.09	文苑	內田周平	「再答朴文卿(朴章鉉)書」
1938.05	靜岳德川公家名相續七十年	孔聖學, 朴章鉉, 金完鎭	「靜岳德川公家名相續七十年頌詞」
	文苑		「上宋恭山浚弼書」
1939.10	사문회 총무, 문학박사 服部宇之吉 사망, 服部隨軒先生追悼錄	權寧浩	「謹悼服部博士」
		安教煥	「追悼詩」
		孔聖學	「輓德川公爵用節山博士韻」
1940.08	사문회장 德川家達 사망. 會長德川家達公追悼錄	孔在哲	「謹奉悼大動位公爵德川家達閣下」
		安教煥	「德川公爵閣下輓章」

《사문》이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유림단체 기관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문》에 소개된 유림들의 활동은 일제 및 일본 유학계가 조선유림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이는 《경학원잡지》에 소개된 사문회 회원의 활동은 대부분 경학원이 거행하는 석전에 참석하여 고유문을 낭독하거나 경학원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서의 강연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은 일본 국가주의에 입각한 일본유교를 강조한 내용으로, 강연 후 《경학원잡지》에 수록되어 전국의 유림들에게 널리 배포되었다. 그런데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문》에 소개된 조선유림의 활동은 일본 사문회원의 그것과 전혀 달랐다.

단적인 예로, 조선유림의 사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등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대부분의 글은 시 혹은 사문회 회원의 시를 차운한 것, 축문이나 고유문, 감상 등을 시문으로 적은 것이었다. 그나마 시문 가운데 순수한 시가 소개된 것은 1919~1920년뿐이었다. 《사문》에 최초로 소개된 조선유림의 시는 김운식의 「채복아(采馯兒)」이다.⁵⁸⁾ 이어 정병조가 조선시대 통신사에 제술관으로 참여했던 문장가 청천 신유한의 시에 차운한 「축석루(矗石樓)」⁵⁹⁾, 김운식의 「평택문묘중수기(平澤文廟重修記)」⁶⁰⁾, 조중응(趙重應)의 「금강산」⁶¹⁾이 있을 뿐이었다. 그 밖에 나머지는 사문회가 주최하는 행사, 예컨대 유시마성당을 참배하거나 쇼와천황의 즉위, 아키히토 황태자의 탄생 축하 등 일본 왕실의 경사에 대한 축하 글, 공자 2400주년 추원기념제, 유시마성당 재건기념 유도대회 등 사문회 주최 행사 참석 후 감상을 적었거나 그것과 관련된 시 등에 차운한 것이다.

조선인이 기고한 글은 단 두 개뿐으로, 김완진의 「조선의 유교와 경학원의 임무」⁶²⁾와 정만조의 「조선문학구페론」이다.⁶³⁾ 「조선문학구페론」은 경학원 대제학을 지낸 인물로, 일제가 ‘조선 제일의 유림’으로 평가한 정만조의 사망을 애도하며 그의 글을 특집으로 실은 것이었다. 경학원 사성 김완진의 글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자 석전의 공간이었던 성균관을 철폐하고 설치한 경학원을 소개한 것으로, 강설이나 논설이 아닌 「잡록」에 배치되었다. 이 글에서 김완진은

58) 《사문》 1편 3호, 1919.4, 53~54쪽

59) 《사문》 1편 4호, 1919.8, 45쪽

60) 《사문》 2편 6호, 1920.12, 42~43쪽

61) 《사문》 2편 6호, 1920.12, 50쪽

62) 金完鎮, 「朝鮮に於ける儒教と經學院の任務」, 《사문》 5편 1호, 1923.2, 44~46쪽

63) 鄭萬朝, 「朝鮮文學揀弊論」, 《사문》 18편 2호, 1936.2, 8~9쪽. 한편, 권두에는 정만조의 글과 함께 경학원 직원과 정봉시 등의 고유문, 鹽谷溫의 「鄭茂亭大提學の長逝を悼む」라는 글이 함께 실려 있다.

경학원에 대해,

조선총독이 반도통치의 방침을 수립할 때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살펴서 유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바꿔 설립한 것이며, 이로써 양반 유생뿐 아니라 일반 민중들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성화(聖化)로 회귀하는 길을 연 것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경학원의 설립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통치방침을 수립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으로,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일제의 충순한 신민이 될 수 있는 ‘성화’의 길을 연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경학원잡지》에 반영된 사문회 회원과 《사문》에 반영된 조선인 유림의 모습은 식민과 피식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즉, 일본 유학계에서는 조선유림을 상호 동등한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일본유학을 우위에 두고 조선유림을 교화와 회유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일제가 병합초기부터 내세운 ‘내선일체’, ‘일시동인’의 실체를 잘 드러낸 것이다.

Ⅲ. 유시마성당[湯島聖堂] 재건기념 유도대회(儒道大會)와 조선유림

1. 유시마성당 재건기념 유도대회

유도를 통해 일본의 도덕과 정신을 진흥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했던 사문회의 주요 사업들은 유시마성당을 거점으로 이루어졌다. 유시마성당은 조선시대 성균관의 문묘에 해당하며, 일본에서는 공자묘(孔子廟),

성묘(聖廟)라고도 칭했다.

유시마성당은 에도시대[江戸時代] 초기 유학자 하야시 라잔[林羅山]이 우에노[上野]의 시노부가오카[忍ヶ岡]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학문소를 세우고 공자묘인 선성전(先聖殿)을 두었던 것이 효시였다. 1690년 5대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德川綱吉]가 학사와 묘당을 유시마로 이전·신축하고, 선성전을 대성전으로 개칭했다. 이때부터 유시마성당에서는 매년 봄·가을 2회의 석전이 행해졌고, 막부의 문교정책을 시행하는 중심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신정부가 성당부지를 근대학문을 위한 공간으로 전용하면서 대성전에서 지내던 석전도 정지되었다.

그러나 1906년 도쿄고등사범학교의 한 직원이 석전 부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문회의 전신인 사문학회가 1907년 공자제전회를 조직하고, 1907년 4월 28일 대성전에서 공자제를 거행하면서 유시마성당은 석전의 공간으로 재부각되었다. 이로써 유시마성당에서는 매년 4월 넷째 일요일에 공자제를 행하고, 식후에는 강연회가 개최되었다.⁶⁴⁾ 1918년 사문회의 결성과 함께 사문회가 유시마성당에 사무실을 두고, 매년 공자제를 주관하고 성당 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사문회와 유시마성당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으로 “일본의 국체를 순화하여 일본 정신문화의 근본”인 유도의 본고장이자 중심이었던 유시마성당과 사문회의 사무실이 전소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유림의 성당 참배는 1924년에 세워진 가건물에서도 계속되었다. 1924년 11월 성당재건계획위원회가 열려 성당 본건축 설계도면의 실행 방법에 대한 협의가 있는 등 유시마성당의 재건은 곧바로 진행되었다. 1926년에는 사문회가 주축이 되어 내각총리대신, 문부대신 이하 사문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성당부흥

64) 정세현, 앞의 논문(2016), 105쪽

기성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재건 비용을 마련했다. 비용은 일왕실의 후원과 다수의 귀족 부호의 기부금, 소학교 학생의 의연금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⁶⁵⁾ 지역적으로는 조선, 홋카이도[北海道] 등에서도 모금이 진행되었다.⁶⁶⁾

1932년 4월에 착공된 성당은 1934년 말에 완성되었다. 성당부흥기성회는 재건된 성당을 국가에 헌납하였고, 국가는 사문회에 사용을 허가했다. 문부성에서는 매년 3만 5천원에 달하는 경비를 사문회에 지원했다. 이로써 사문회는 정부의 후원하에 유시마성당의 관리 및 공자제를 주관하게 되었다.

사문회에서는 유시마성당의 재건을 계기로 공자제와 유도회의를 계획했다.⁶⁷⁾ 당면한 시국 상황이 동아민족의 단결을 요하는 이때 “동문동족(同文同族)이 공유하는 존공(尊孔)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성당준공을 계기로 소원해진 일·지 양국의 이해와 융화를 이루고자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⁶⁸⁾

65) 《사문》에서는 매호 말미에 ‘성당부흥기성회기부금’란 등을 마련하여 기부금을 낸 사람의 이름과 액수 등을 기재했다.

66) 『彙報』, 《사문》 9편 5호, 1927.5, 47쪽. 1927년 4월 성당부흥기성회의 이사 핫토리 우노키치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 다카하시 도루, 경학원 사성 김완진의 양해를 얻어 조선총독부에 모집허가원을 내고, 각 학교에 依頼狀을 발송함과 동시에 총독, 도지사, 기타 관계 방면에 원조방안을 의뢰했다. 또 홋카이도청 학무국장과도 교섭하여 관내 각 학교에도 의뢰장을 발송했다.

67) 《사문》 17편 5호 (1935.5)는 湯島聖堂復興記念號로 간행되었으며, 《경학원잡지》 39(1935.10.7) 『彙說』란에서는 「湯島聖堂祭典狀況」이라는 항목을 두고 관련 행사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한편, 사문회에서는 「유도대회 개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개요」·「유도대회의 記」·「유도대회에 따른 여러 회합기사」·「제29회 공자제전」·「유교문화강연회」·「유도대회기념방송」·「제29회 공자제전기념 춘계대강연」·「소년소녀 공자제 기념강연」·「유도대회에 대한 諸家の 감상」 등을 정리하여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會誌』(1936.10)를 간행했다.

68) 斯文會, 「儒道大會開設ノ爲資金ヲ財團法人斯文會ニ交附ヲ請願スルノ件」,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會誌』, 1937, 5~6쪽

유도대회의 개최는 1931~1932년경 재단법인 사문회 부회장 사카타 니 요시로[阪谷芳郎] 남작이 당시 시국을 진단하고 “동문동종인 동아 민족을 결합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동아 각국이 공유하고 있는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일대회의(一大會議)”⁶⁹⁾의 개최를 제안한 것이 계기였다. 곧이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명칭은 ‘유도대회’로 정해졌다.

사문회의 주관으로 ‘최초의 세계유도대회’가 4월 28일부터 개최되었다. 그리고 4월 30일에는 부대행사로 제29회 공자제전이 거행되었고, 그 사이 일반 대중을 위한 유교문화전람회와 유교강연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개최되었다. 1935년 4월 28일에 개막된 유도대회에는 중화민국, 만주국, 조선과 대만의 유럽 대표, 심지어 유럽 대표까지 참가했다.⁷⁰⁾ 중국에서는 산동의 공자와 안자의 후손 대표가 파견되었고, 북경[北平]·상해(上海)·하남(河南) 각지에서도 참가가 있었다. 만주국에서는 문교부 차장 등을 파견하였고, 조선과 대만에서도 유학계의 대표 인사들을 파견하는 등 전에 없던 성대한 의식이었다.

그러나 ‘최초의 세계유도대회’를 표방한 이 대회는 일제의 만주 침략과 만주국 건립에 따른 세계의 비판, 그리고 천황주권을 위협하는 천황기관설의 주장 등 사회적 동요에 대응책으로 기획된 것이었다.⁷¹⁾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내무대신 고토 후미오[後藤文夫]와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대회 축사에서도 확인된다.

고토 후미오는 당시 동아시아 상황을 “거국적으로 국민정신을 발휘하여 난국을 타개해야 할 대단히 중대한” 시국으로 진단하였다.⁷²⁾ 그

69) 위와 같음.

70) 공성학의 『湯島紀行』에 따르면, 당시 내외 참석자는 중화민국 22인, 만주국 5인, 조선인 14인, 대만 3인, 서양인 2인, 그 밖의 참석자를 합하여 400여 명이었다.

71) 박영미, 앞의 논문(2015), 295쪽.

72) 後藤文夫, 「祝辭」, 《경학원잡지》 39, 1935.10, 27쪽

리고 사이토 마코토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친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상 혹은 경제상 보통의 방법은 효과가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나타난다. 문화상에서 의견을 소통하고자 한다면 비록 조금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달성할 위대한 친화력은 예상 밖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특히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고 동일한 교학(敎學)을 신봉하는 국민 간의 학술은 최대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⁷³⁾

라고 하여,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고 동일한 교학, 즉 유교를 공유한 국민 간의 학술적인 친교를 제안하면서, 유도대회의 개최야말로 제국 일본의 통치상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유도대회의 개최는 하나의 아시아 즉, 대동아공영권 달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구체적 방안은 일본유교, ‘황도(皇道)’였다. 이는 오후에 진행된 유교문화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선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강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노우에 데츠지로는 공자의 인격과 신념에 대해 강연하면서,

일본의 왕도는 지나의 왕도와 덕치주의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일본의 왕도는 혁명을 인정하지 않는 왕도로 영구불변의 전통이 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천황을 왕자(王者)로 인식하고, 그가 행하는 도를 왕도라고 생각해 왔으나, 지나와 왕도와 구별하기 위해 ‘황도’라고 말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근래에 황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황도는 왕도이지만 지나의 왕도와 혼동되지 않는 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나에는 일본같이 일관된 황실 같은 것이 없으므로, 공자를 공경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중요시하여 덕교(德敎)의 기초를 쌓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교육이 목

73) 齋藤實, 「祝辭」, 《斯文》 17편 6호, 1935.6, 66쪽

적한 대로 가지 않으면 역시 정치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나가 일본을 배운다면 그러한 성인 현자를 공경하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여 공자의 자손을 세워 군주로 삼아 정치도 역시 공자의 이상인 왕도를 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진정한 황도를 행치 않으면 장래는 일본의 황도를 본받을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⁷⁴⁾

라고 하여 일본의 왕도정치를 중국의 그것과 구별하여 황도정치로 부를 것을 주장했다. 즉, 일본의 왕도정치는 덕치주의지만 역성혁명을 인정하지 않으며 ‘만세일계’의 전통이 있으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유교에서 언급되는 왕도와 혼동되지 않도록 ‘황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35년 유시마성당에서 개최된 유도대회는 1934년 다이토문화학원 내에서 발족한 일본유교선양회(日本儒教宣揚會)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⁷⁵⁾ 더욱이 유도대회가 개최된 시점이 일본의 침략전쟁이 노골화되어 가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시마성당 재건기념 유도대회는 황도유학의 이론화와 선전을 통해 군국주의를 고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유시마성당 재건기념 유도대회에 참여한 조선유림

‘최초의 세계 유도대회’ 개최를 앞두고 사문회에서는 조선과 대만총

74) 井上哲次郎, 「孔子の人格と信念」,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會誌』, 斯文會, 1936, 130~131쪽

75) 강해수는 ‘황도 및 국제에 순화된 유교’로서의 담론은 1933년 3월 제국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에 따른 ‘고립 일본’의 시기인 1934년 1월 27일 다이토문화학원 내에서 발족된 ‘日本儒教宣揚會’에서 편찬한 『日本之儒教』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했다고 보았다(강해수, 「“皇도에 醇化·融合된 유교”로서의 ‘황도 유학(교)’ 담론 -다이토(大東)文化學院과 경학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2, 2019).

독부에 알맞은 인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초대장은 총독부를 통해 전달되었다.⁷⁶⁾ 초대받은 조선측 인사는 경학원 대제학 정만조, 경학원 부제학 유진찬,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카하시 도루, 경학원 강사 이상호(李尙鎬), 명륜학원 평의원 황석룡(黃錫龍), 공자 후손 공성학·공의동(孔義東)·공재철(孔在哲), 경학원 사성 김완진, 경학원 사성 안인식, 이왕직 촉탁 에하라 쯤쓰이[江原善槌], 조선유교회 교정 안교환(安敎煥), 조선유교회 종리사장 박연조(朴淵祚) 등이었다.⁷⁷⁾ 유도대회에 초대된 조선 측 참석자의 명단은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⁷⁸⁾ 대략 13명 정도였다. 경학원과 명륜학원 관계자, 경성제국대학 교

76) 사문회,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會誌』, 1936

77) 위와 같음.

78)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會誌』와 《경학원잡지》 39에 수록된 참석자는 동일하다. 다만 유도대회에 조선측 인사로 참가한 孔聖學이 남긴 여행기인 『湯島紀行』과 安敎煥의 「東京行記述」(《일일시보》 4, 1935)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은 각 자료를 비교·정리하여 표로 만든 것이다.

연번	이름	『儒道大會誌』· 《경학원잡지》 39	『湯道紀行』	「東京行記述」
1	鄭萬朝	경학원 대제학	경학원 대제학·명륜학원 총재	조선경학원 대제학
2	俞鎭贊	경학원 부제학	경학원 부제학·명륜학원 평의원	조선경학원 부제학
3	高橋亨	경성제국대학 교수	경성제국대학 교수·명륜학원 강사·문학박사	경성제국대학 교수
4	李尙鎬	경학원 강사	경학원 강사	경학원 강사
5	黃錫龍	명륜학원 평의원	명륜학원 평의원	평남 사립대표
6	孔聖學	공부자 후손	명륜학원 평의원·대동사문회 총무·공부자 후손	공자 후손
7	孔義東	공부자 후손	공부자 후손	공자 후손
8	金完鎭	경학원 사성	경학원 사성·명륜학원 幹事	경학원 사성
9	安寅植	경학원 사성	명륜학원 강사·경학원 사성	경학원 사성
10	江原善槌	李王職 囑託	X	X
11	安敎煥	조선유교회 敎正	조선유교회 敎正	조선유교회 敎正
12	朴淵祚	조선유교회 宗理	조선유교회 宗理司長	조선유교회

수, 공자 후손, 유교관련 단체의 간부들이었다.

〈표 3〉 유시마성당 재건기념 유도대회 조선측 참석자

연번	이름	『유도대회지』· 《경학원잡지》 39	경력	비고
1	정만조 (1858~ 1936)	경학원 대제학	李王職 典祀(1911)/朝鮮語辭典審議委員(1918)/大東斯文會 발기인(1919)/경학원 강사(1921~1925, 경기도)/東京·京都·大阪·奈良·嚴島 출장(1921)/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1921)/중추원 참의(1925)/경학원 부제학(1926~1929.4)/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문학부 강사(1927~1934)/조선사편수회 위원(1928~1933)/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1929)/경학원 부제학(1929)/경학원 대제학 겸 명륜학원 총재(1935)/명륜학원 강사 겸임(1932~1935)/조선유교회 明理院 法正(1932)/《일일시보》 경학부 고문(1935)/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 창자(1935)	사 문 회 회 원 《 동 아 일 보 》 등에 다 수의 한 시 기고
2	유진찬 (1866~ 1947)	경학원 부제학	대한제국 관원으로 지방과 중앙관직 역임/중추원 조사과 촉탁(1928~1939)/경학원 부제학(1930)/경학원 부제학 겸 명륜학원 평의원(1931~1939)/조선유교회 明理院 法正(1932)/조선유도연합회 참여(1939)/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1941)	사 문 회 회 원

		司長		宗理司長
13	孔在哲	공부자 후손	공부자 후손	황해도 사림대표
14	孔錫祐	X	공부자 후손	X
15	李康元	X	전라북도 유림대표	X
16	李尙鎬	X	X	경상북도 사림대표
	計	13명	14명	13명

79) 《大韓興學報》 13, 「編餘漫筆」, 1910.5

3	다 카 하 시 도루	경성제국대학 교수	관립한성고등학교 學監(1908~1910)/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1911~1916)/대구고등보통학교 학교장(1917~1920)/東京帝國大學 문학박사학위 취득(1919)/총독부 학무국 視學官(1921~1925)/경성진수학교 교수(1922)/소학교급보통학교 교육시험위원·조선정보위원회·교과서조사위원회·사립학교 교원인정위원회 등(1923~1926)/경성제국대학창설위원회(1924)/경성법학전문학교 교수(1923~1925)/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1926~1938)/명륜학원 강사(1930~1939)/명륜학원 평의원(1931~1939)/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강사(1939)/경성제국대학 명예교수(1941~1943)/경학원 대재학 겸 명륜연성소 소장, 조선유도연합회 부회장(1944)	사 문 회 회원 「王道儒道より皇道儒道へ」(1939)
4	이상호 (1864~1919)	경학원 강사	漢城府 別試 初試 入格/안동군 禮安文廟 直員(1912~1913)/陶山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1919)/安東郡煙草組合長(1918)/안동군 예안문묘 직원(1920)/경학원 경북 강사(1930~1939)	퇴계 이황의 후손 ⁷⁹⁾
5	황석룡 (1866~?)	명륜학원 평의원	진사 입격(1894)/공립평양보통학교 부훈도(1908~1914)/平壤府 箕子陵 直廬/명륜학원 평의원(1931~1935, 평안남도)	평안남도 평양부 典事 ⁸⁰⁾
6	공성학 (1879~1957)	공부자 후손	개성삼업주식회사 설립(1910)/개성삼업주식회사 이사/개성문묘 사성(1924)/도평의원(1929)/개성상회 창립(1938)/경학원 사성/명륜학원 평의원(1931~1939, 경기도)/경학원 부제학(1943)	사 문 회 회원/인삼업애중사/『杜門洞書院誌』발행
7	공의동	공부자 후손	공자 후손	
8	김완진 (1877~	경학원 사성	관립한성영어학교 수학(1905)/학부 書記郎(1907), 학부 주사/조선총독부 군수	사문회 회원

	1948)		(1912~1918)/경학원 사성(1918)/東京·京都·大阪·奈良·巖島 출장(1921)/경학원 사성 겸 명륜학원 간사(1930~1939)	
9	안인식 (1891~1969)	경학원 사성	朝鮮公立普通學校 副訓導(1914)/朝鮮公立普通學校 副訓導(1917)/조선공립고등학교 교유(1923~1927)/朝鮮語獎勵試驗委員(1923)/명륜학원 강사·경학원 사성(1930~1943)/조선유교회 창립 幹務者(1932)/臨時歷史教科用圖書調查委員會委員 촉탁(1935)/《일월시보》 경학부 고문(1935)/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순회강연반 강사(1938)/중교단체연합회 주최 총후보국강연회 연사(1938)/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참사(1939)/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에서 주최한 國民精神宣揚 各道巡迴講演 연사(1939)/朝鮮中堅儒林聖地參拜團 단장(1942)	사문회 회원
10	에 하 라 젠쓰이	李王職 囑託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查局 書記(1910)/조선총독부 총무부 문서과 촉탁 겸임(1910~1921)/경성전수학교 강사 촉탁(1911~1922)/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참서관실(1922)/중추원 조사과 촉탁(1923~1929)	
11	안교환 (安淳煥, 1871~1942)	조선유교회 敎正	궁내부 전선사 掌膳(1909)/李王職事務官(1911)/ 조선유교회 宗理院 敎正(1932)/『曲阜 聖廟慰安事實記』 교열(1931)/조선유교회 창립(1932)/조선유교회 기관지 《日月時報》 발행자 및 사장(1935)	안 향 의 2 1 세 손 ⁸¹⁾ /明月館·태화관 운영·食道園·녹동서원 설립 / 『鹿洞書院院誌』 편찬/서화상·서화가

12	박연조	조선유교회 宗理司長	경북 군위 출신/曲阜兵禍慰問使(1930)/『曲阜 聖廟慰安事實記』 편집(1931)/조선유교회 창립 幹務者(1932)/조선유교회 宗理司長(1932)/녹동서원 명교학원 강사 ⁸²⁾	국채보상운동, 신간회 대구 경북지부 활동
13	공재철	공부자 후손	공자 후손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에 의거한 것임
 (https://db.history.go.kr/ 2023.10.10. 최종 검색)

<표 3>은 유시마성당 재건기념 유도대회에 참석한 조선측 인사들의 대회 참석 전후의 경력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먼저, 대회 참석 당시 참가자의 자격이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경학원의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사문회 회원이었다는 점이다. 유도대회 참석자 가운데 경학원 소속으로 참여한 인사는 정만조(경학원 대제학), 유진찬(경학원 부제학), 이상호(경학원 강사), 황석용(명륜학원 평의원), 김완진(경학원 사성), 안인식(경학원 사성) 등 6명이지만,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카하시 도루는 당시 명륜학원 강사 및 평의원 재직 중이었으며, 공자의 후손 공성학 또한 경학원 사성 및 명륜학원 평의원 재직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13명 중 8명, 즉 전체의 62%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상호와 황석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문회 회원이었다.

경학원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유림을 통제·관리하는 한편, 유

80) 《大東斯文會報》 1920.4, 82쪽

81) 《매일신보》, 「安教煥氏別世」, 1942.10.1

82) 沈相碩, 『鹿洞日記』 3월 10일 경자; 黃英禮,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436~437쪽

림들의 항일의식을 차단하고, 일제의 식민 통제에 협력하는 ‘일제협력 유림’을 양성하기 위해 1911년 6월 조선총독부 직속기구로서 만들어진 기관이었다.⁸³⁾ 게다가 조선총독부의 대(對)유교 및 유림정책의 중심기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학원 인사들의 유도대회 참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사문회 회원이었다는 점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일본 유학계와 총독부는 대표적인 친일협력유림단체이자 직속기구인 경학원 핵심 인물의 참여를 통해 유도대회에서 발현된 일본 유도, 즉, ‘황도’를 알리고 식민지 조선에 유포·이식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제일의 유림’이었던 정만조는 유도대회에서 ‘조선 특유의 유자의 예장(禮裝)을 갖추고’ 조선어로 축사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동아 여러 나라가 서로 연계한다면 우리 동종동문의 친선관계 또한 더욱 굳건해질 것이니 이 어찌 사문만의 행운이겠는가. 실로 동아 백년 대계이다”라고 하여 사문회가 표방한 대회 취지에 정확히 합치된 내용의 축사를 했다. 그리고 동아공교연맹(東亞孔教聯盟)을 조직하여 종교적 선전기관을 설치할 것과 조선유교진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전자의 방안으로서 ① 왕도정치를 철저히 고취할 것, ② 도덕교육을 극력(極力) 주장할 것, 후자에 대해서는 각 군의 향교와 연락하여 교화사업을 행할 것을 제안했다.⁸⁴⁾ 여기에서 정만조가 언급한 왕도정치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인 ‘황도유학’에 입각한 황도정치였다.

둘째, 유도대회에는 공성학, 공의동, 공재철 3인이 공자의 후손 자격으로 참가했다. 공씨 인물들의 참석은 사문회가 ‘최초의 세계 유도대회’를 표방하고 중국·만주국·대만·조선, 유럽 인사는 물론 유교 성현의

83) 경학원규정에 의하면 경학원의 직원으로 대제학 1명, 부제학 2명, 祭酒 5명, 司成 약간 명, 直員 약간 명으로 되어 있다(《조선총독부관보》, 1911.6.15).

84) 사문회, 「儒道大會의記」,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會誌』, 1936, 43~44쪽

후손들을 초대할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성의 사업가 공성학은 자신이 기술한 『탕도기행』에서 참가 당시 자신의 직책을 “명륜학원 평의원·대동사문회 총무·공부자 후손”으로 적음으로써 공자의 후손 외에도 유림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점이 주목된다.

셋째, 유도대회 참가자 가운데 1930년대 조직된 유림단체인 조선유도회의 1, 2인자인 안교환⁸⁵⁾과 박연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결성된 각종 유림단체가 조선총독부의 지원 아래에 일제 협력유림과 식민지 관료들에 의해 주도된 것과 달리 조선유교회에는 일제협력 유림 외에도 반일의식이 강한 유림도 참여했으며, 그 운영도 총독부의 지원없이 안교환 개인의 재산 회사로 이루어졌다.⁸⁶⁾

안교환은 안향의 후손으로, 서울 근처 시흥에 녹동서원을 설립하고 명교학원을 설치하여 유교부흥을 꾀한 인물이다. 1932년 조선유교회를 설립하고, 기관지인 《일월시보》를 발행하여 사장을 지냈다. 박연조는 안교환과 함께 조선유교회 창립에 간여했던 조선유교회의 제2인자로, 조선유도회 종리사장, 명교학원에서 강사를 맡은 인물이다. 안교환이 녹동서원을 건립할 때부터 참여하였으며, 취푸 공자묘위안사[曲阜孔子廟慰安使]로 중국에 다녀온 인물이다. 위 공자묘위안사는 1930년 6월 중국의 국공내전 기간 취푸의 공자 사당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에

85) 안교환은 본래 이름은 안순환으로, 개명한 것이다.

86) 조선유교회에 대해서는 정옥재, 「일제강점기 조선유교회 성격에 대한 재검토」, 《퇴계학논집》 27, 2020 참조. 조선유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나뉘어 있다. 유교의 종교화운동을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단체의 결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제협력유림과 반일적 유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친일적 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견해와 반일적 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정옥재, 앞의 논문(2020), 45쪽 주7) 참조).

경성의 유림단체 대표자들이 녹동서원에 모여 대책을 협의하고, 1930년 12월 취푸에 파견한 위문사절이다. 귀국 후, 박연조와 안승구는 파견 전말을 담은 『곡부위안사실기(曲阜慰安使實記)』를 집필·간행했다.⁸⁷⁾ 이 사건은 안교환과 박연조가 녹동서원의 건립과 함께 조선 내 유림들의 명망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⁸⁸⁾

조선총독부는 왜 친일협력단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조선유도회의 핵심인사를 선발하여 유도대회에 참석하도록 했을까? 1930년대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1910~1920년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고 강화되어 사실상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나 반일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1920년부터 경성과 지방에 결성된 친일유림단체는 대부분 1925년 이후로 활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1932년 안교환 등이 설립한 조선유교회이다.⁸⁹⁾ 따라서 유도대회가 개최될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사실상 존재하는 유교단체는 조선유교회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유림들이 다수 가입하여 활동한 단체라는 점에서도 총독부로서는 무시할 수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대표적인 유교단체인 조선유교회의 인사를 최대 규모의 유교행사에 참석시켜 직접 견문하게 함으로써 일제 유학계의 동향을 직접 접하게 하고, 나아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유림으로 회유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넷째, 전통적인 유림의 범주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유도대회에 참가했다는 점이다. 상업종사자, 요리종사자, 일본 유학 경험자로 공성학, 안교환⁹⁰⁾, 안인식의 경우가 그러하다. 공성학은 자칭 공자의 후손이며

87) 黃英禮, 『安淳煥의 儒敎 宗敎化 運動과 鹿洞書院』, 영남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88) 더욱이 박연조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국제보상운동, 신간회 대구경북지부 활동 등에서 전유림대표자로 선발된 만큼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黃英禮, 앞의 논문, 441쪽).

89) 정육재, 앞의 논문(2020), 47쪽

개성의 성공한 인삼사업가이자 출판인으로, 1924년에 개성문묘 사성, 이후 경학원 사성을 거쳐 명륜학원 평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후 1943년에는 경학원 부제학에까지 이르렀다. 안교환은 고려말의 거유(巨儒) 안향의 후손으로 대한제국 궁내부 전선사 장선(掌膳)을 지냈으며, 명월관·태화관·식도원 등 요릿집을 운영하여 “경성에 있어서 조선 요리업자의 원조라고 할 만한”⁹¹⁾ 인물이었다. 유림으로서의 행보는 1931년 2월부터 재야의 유림을 만나 유교회를 창립할 뜻을 밝힌 것, 1932년 9월 25일(음 8. 25) 조선유교회의 창립, 기관지인 《일월시보》의 발행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안인식은 1930~1940년대 ‘황도유학’을 제창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대표적인 일제협력유림이었다. 1914년부터 1927년까지 공립보통학교 부훈도, 교유를 지냈으며, 1925년 일본에 유학하여 다이토 문화학원 고등과에 입학, 1929년 3월에 졸업했다. 귀국 후 1930년대부터 경학원 사성과 명륜학원 강사로 임명되어 유교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1932년 조선유교회 창립에 참여했다. 1935년 유시마성당 재건기념 유도대회 참석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조선언론보국회 등에 참여하였으며, 각종 강연을 통해 전쟁에 협력했다.⁹²⁾ 경성제국대학 문학박사 다카하시 도루와 함께 전시체제가 ‘황도유학’의 이데올로그이자 전파자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인물이다.⁹³⁾ 이와 같이 전통적인 유림상과 다

90) 공성학과 안교환에 대해서는 박영미, 앞의 논문(2015); 정옥재, 앞의 논문(2020) 참조.

91) 「三千里 杏花村」, 《삼천리》 8-8, 1936.8

92) 《경학원잡지》에는 논설·강설로 「農村振興과 儒林의 覺醒(毎日申報社說抄錄) -時運時變에 適應하라」(《경학원잡지》 39, 1935.10), 「東亞ノ建設ト儒道ノ精神」(《경학원잡지》 45, 1940.12)이 수록되어 있다.

93) 高橋亨, 「王道儒道より皇道儒道へ」, 《朝鮮》 295, 1939.12; 安寅植, 「皇道儒學の本領」, 《朝鮮》 347, 조선총독부, 1944.4

른 인물의 등장은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유림의 성격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IV. 맺음말

이상을 통해 근대 일본 유교단체 사문회와 식민지 조선유림의 교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918년 재단법인으로 출발한 유교단체인 사문회는 일본 메이지시대 공자를 숭배하고 제사를 행하며 한문을 연구, 강의하던 학술단체인 사문학회를 모태로 하였다. 일본 정부의 재정적 후원과 정부 요인의 참여로 결성·성립되었으며, 유도를 주로 하여 동아의 학술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를 익찬하며 일본 국체의 정화를 발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일제의 국가주의에 충실한 관제 어용단체였다.

조선총독부는 일찍이 식민지 조선의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조선유림의 유시마성당 참배와 사문회 방문을 기획하였고, 도일한 조선유림들은 사문회를 방문하고 유시마성당을 참배했다. 참배 후에는 사문회 회원으로부터 사문회 및 일본 유학에 관한 강연을 들어야 했는데, 그 내용은 사문회의 취지와 ‘동양평화를 위한 내선융화의 필요성’, 일본유교, 침략전쟁의 수행에 관한 것이었다.

3·1운동을 경험한 일제는 문묘석전 등 경학원 주관 행사에 사문회 인사들을 초청했다. 조선에 건너온 사문회 인사들은 문묘석전에 참석하고, 이어 경학원 주최한 강연회에서 대동사문회 등 조선 유교단체 소속 유림과 총독부 관리, 관공립 학교 교직원,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주요 강연 내용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조선의 지배와

통치방향에 관한 것으로, 일본 국가주의에 입각한 일본유교를 강조한 내용이었다. 강연 후 그 내용은 《경학원잡지》에 수록되어, 전국의 유림들에게 널리 배포되어 읽혔다.

한편, 《사문》에 소개된 조선유림의 글은 《경학원잡지》에 실린 사문회 회원의 그것과 전혀 달랐다. 대부분이 시, 축문이나 고유문, 감상 등이었다. 사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강설’, ‘논설’ 등의 글은 전혀 없으며, 사문회가 주최하는 행사를 참석한 후 감상을 시로 적었거나 일본 왕실의 경사에 대한 축하 시 등에 차운한 것들로, 《사문》에 반영된 조선유림의 모습은 피식민과 교화의 대상일 뿐이었다.

1924년 관동대지진으로 불에 타버린 유시마성당이 1934년에 재건되면서 사문회에서는 성당재건기념 유도대회와 공자제전을 진행했다. 1935년 4월 28일에 개막된 유도대회는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국 건립에 따른 세계의 비판, 그리고 천황주권을 위협하는 천황기관설의 주장 등 사회적 동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획된 것이었으며, 황도유학의 이론화와 선전을 통해 군국주의를 고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유도대회에는 중국, 만주국, 조선과 대만의 유림 대표 등이 참석했는데, 행사에 초대된 조선측 인사는 대략 13명 정도였다. 경학원과 명륜학원 관계자, 경성제국대학 교수, 공자 후손, 유교관련 단체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경성대학교수 다카하시 도루와 이왕직 촉탁 에하라 쯤쓰이를 제외한 조선인 11명의 면면을 보면, ① 대부분은 경학원의 주요 구성원이자 사문회 회원이었으며, ② 공성학 등 3인이 공자의 후손 자격으로 참가했고, ③ 1932년에 조직된 유림단체인 조선유교회의 대표자가 참가했다. 그리고 ④ 상업종사자, 요리종사자, 일본 유학경험자로 공성학, 안교환, 안인식 등 전통적인 유림의 범주에서 벗어난 인물들의 참가가 주목된다. 전통적인 유림상과 다른 인물의 등장은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유림의 성격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1935년 유시마성당 재건기념 유교대회의 개최를 통해 일제가 경학원의 핵심 인사이자 사문회 회원 및 당시 대표적인 유교단체인 조선유교회 인사를 초청한 것은 대륙침략을 앞두고 조선인에게 제국의 신민이 되어 제국 일본과 운명을 같이하도록 회유·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 수단은 일제에 의해 왜곡된 왕도정치, 즉 황도정치였다. 황도정치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신도(神道)와 충효일체론을 합한 것으로 천황제를 뒷받침해 주는 국가주의였다. 불행하게도 유도대회에 참석한 그들은 유도대회에서 발현된 일제의 침략논리를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충순하계’ 전달하고, 나아가 확장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카하시 도루와 안인식이다. 이들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접수 : 2023.12.24., 심사시작 : 2023.12.24., 심사완료 : 2024.01.04.]

<참고문헌>

자료

《斯文》, 《經學院雜誌》, 《大韓興學報》, 《大東斯文會報》, 《삼천리》, 《朝鮮》

朝鮮儒道聯合會, 『朝鮮儒林聖地巡拜記』, 1943

孔聖學, 『湯島紀行』

安教煥, 「東京行記述」

《조선총독부관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斯文會,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會誌』, 193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논저

강동진,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1980

장순순 외, 『일본 유교잡지 『斯文』 기사 상세목록(1919~1946)』, 선인, 2022

_____ 외, 『일본 유교잡지 『斯文』 주요 기사 1』, 선인, 2022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역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사팀 옮김, 『근대일본사상사』, 소명출판, 2006,

강해수, 「“皇道에 醇化·融合된 유교”로서의 ‘향도유학(교)’ 담론 -다이토(大東)文化學院과 경학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2, 2019

박영미, 『일제강점초기 한학지식인의 문명관과 대일인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_____, 「경학원에 보이는 근대 일본 유학의 경향」, 《일본학연구》 27,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_____, 「공성학(孔聖學)의 탕도기행(湯島紀行)에 대하여」, 《한문학

- 보》 32, 우리한문학회, 2015
- 류미나, 「식민지권력에서의 ‘협력’과 좌절 -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26, 2005
- _____, 「전시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한국 역사연구회, 2007
- 변은진,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현황과 성격」, 《역사와 담론》 93, 호서사학회, 2020
- 성주현, 「1920년대 유림계의 ‘내지시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 정세현, 「공자제를 통한 경학원과 사문회의 교류 - 공자이천사백년추원 기념제(孔子二千四百年追遠記念祭)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35, 우리한문학회, 2016
- 정옥재, 「일제강점기 經學院 講師의 위상과 활동」, 《歷史學研究》 86, 호남사학회, 2002
- _____, 「1910~1920年代 經學院의 人的構成과 役割」, 《정신문화연구》 3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_____, 『日帝協力儒林의 儒敎認識: 1910~1920년대 경학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6, 한국사학사학회, 2007
- _____,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 황도유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9
- _____, 「1920년대 식민지 조선유림과 일본의 탕도성당(湯島聖堂)」, 《民族文化研究》 7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 _____, 「일제강점기 조선유교회 성격에 대한 재검토」, 《퇴계학논집》 27, 퇴계연구원, 2020
- 조성운, 「『매일신보』를 통해서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 《한일민족문제연구》, 한일민족문제학회, 2004
- 黃英禮, 『安淳煥의 儒敎 宗敎化 運動과 鹿洞書院』, 영남대학교 철학과 박

사학위논문, 2004

李曉辰, 「京城帝国大学の支那哲学講座と藤塚鄰」, 《東アジア文化研究会
院生論集》 1, 2013

陳璋分, 「斯文学会」の形成と展開--明治期の漢学に関する一考察」, 《中
国哲学論集》, 21, 1995

——, 「近代日本と儒教-「斯文會」と「孔子教」を軸として-」, 九州大學 博
士學位論文, 1999

<Abstrac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Joseon Confucianists and the Japanese Sibunnkai in Japanes Colonial Era

Chang, Soon-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ibunkai, a controlled Confucian group in modern Japan and the Confucianists in Colonial Jose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ad earlier planned the worship of the Yushima Seido and a visit to the Sibunnkai of the Joseon Confucianists by the Confucianists for the purpose of Harmony between Japan and Korea(內鮮融和). After visiting the Sibunnkai and worshipping at Yushima Seido, the Joseon Confucianists they were required to listen to a lecture by a member of the Sibunnkai. After the March 1 Mo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vited members of the Sibunkai to Joseon. After attending Munmyo-seokjeon(文廟釋奠), they gave a lecture at the conference hosted by the Gyeonghakwon(經學院). The lectures were about Japan's domination of colonial Korea and the direction of governance, emphasizing Japanese Confucianism based on Japanese nationalism. Its contents were iredcorded on *the Journal of Gyeonghakwon* and were widely distributed and read by Confucianists across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Sibun* also contained articles of the Joseon Confucianists, and the appearance of the Joseon Confucianists reflected in the the Sibun was only an image of colonization and an object of edification.

As the Yushima Seido, which was destroyed in the Kanto Great Earthquake, was rebuilt, the Sibunkai organized the Competition of Confucius to commemorate the reconstruction of the Seidol and the Ceremony of Confucius in 1935. The Competition of Confucius w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inspire militarism through the theorization and propagation of the Imperial Confucianism. Joseon's personnel also participated in the judo competition, which was a major member of the Gyeonghakwon, a member of the Sibunkai, and a descendant of Confucius. They were a representative of the Joseon Confucian Association(朝鮮儒教會), a Confucian group organized in 1932. There were also participants from people who deviated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category, such as commercial workers, culinary workers, and Japanese study experiences. Their appearance also suggest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lonial Joseon Confucianism have changed significantly since the 1930s from before.

Key words : the Confucianists in Colonial Joseon, Sibunkai(斯文會), *The Sibun* (《斯文》), Gyeonghakwon, *the Journal of Gyeonghakwon*(《經學院雜誌》), Yushima Seido(湯島聖堂), the Imperial Confucianism(皇道儒學)

